

“노사 모두 건설현장에서 불법과 타협 말라”

김문수 위원장, ‘노동개혁 법치주의’ 주제로 강연
전문건설공제조합 CEO경영과정, UN 한국봉사단 CEO과정

김문수 위원장은 3월 21일(화)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동국대학교 주관의 ‘건설경영CEO과정’과, 22일(수) 리베라호텔에서 ‘UN 한국봉사단 CEO 과정’ 강연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 김 위원장은 “지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응하여 대통령의 확고한 법치선언이 있었다”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무너진 법치와 공권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며, 불법과 타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유엔봉사단이 주관한 ‘10기 CEO 씨밋 과정’에서도 강연자로 나서 ‘기업과 근로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사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 정부의 노동개혁과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eslc](https://www.eslc.go.kr)



“노동개혁 성공하려면 국민적 지지가 중요”

김 위원장, 대구경영자총협회 조찬 강연 및 한국가스공사 더코가스노조 간담



김문수 위원장은 3월 24일(금)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 경영자총협회의 초청으로 ‘최고경영자세미나’ 조찬강연을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높이 산다”며,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경제인들이 노동개혁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같은 날,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MZ세대 노조인 ‘더코가스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더코가스노조와 간담회에서 “공정과 실리를 중시하는 MZ 노조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며,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개선이 노조의 사명임을 거침없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의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대구 방문 노·사 단체 간담은 노동현안과 노동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ESIC](#)

“노사법치주의 토대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

김문수 위원장,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축사

노동3대학회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와 없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이중구조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는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고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노사 관행을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는 다수의 학계 및 관계자 등이 참석,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주제로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됐다. [ESIC](#)